

#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행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l-Life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Chinese in Korea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부 교수 최덕경

Dep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oi, Duck Kyoung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identify real-life conditions of Korean-Chinese in Korea(clothing habits, eating habits, housing habits, economic life and leisure activities) but also to reveal the related variables that shall affect life quality.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Korean-Chinese in Korea related to 'Compatriots Hous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0th to July 5th, 2000. A total of 225 questionnaires out of 350 were used as the final data analysis.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PC for frequency, percentage, F-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life quality of Korean-Chinese in Korea according to age( $p < .05$ ), optimum income( $p < .001$ ), health condition( $p < .001$ ), education level( $p < .005$ ), and entry motivation( $p < .05$ ).

2. Variables such as optimum income( $\beta = .334$ ), education level( $\beta = -.190$ ), monthly income( $\beta = .170$ ), health condition( $\beta = .151$ ), and self-esteem( $\beta = .133$ ) affected life quality of Korean-Chinese in Korea. Korean-Chinese's life quality was explained by these variables(35%). The optimum income variable was the primary influential factor.

\* 한경대학교 2000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 체류자가 2000년 말 현재 18만8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의 절반이 중국인(조선족 포함 : 9만5천6백여 명)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1.02.12).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3D 직종에서 일하며, 집을 팔거나 전 재산을 저당 잡혀 거액의 빚을 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

한편 2000년 하반기 들어 국내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한 재한 중국조선족들도 크게 늘었다(문화일보 2000.12.05). 이들은 저마다 코리아 드림을 안고 목숨건 한국행을 감행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밀입국 과정에서 발각돼 강제 추방될 경우 사전에 모집 알선책 등에 제공한 10년치 소득을 고스란히 날리고 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조선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중국 조선족들의 해상 밀입국사건과 불법체류문제 이외에도 내국인에 의한 사기, 사업주에 의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산재 문제, 강제 추방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여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고 중국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국적인 생활문화와 언어를 지키면서 두 문화 간의 조화를 이룬다(이광규, 1994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국적상으로 중국인이나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명백히 한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을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단일 시각으로 볼 수 없어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을 대하는데 혼란을 경험한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중국 조선족을 출입국관리체계에 의해 중국인으로 분류하며 사회적으로는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최하층의 노동자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현실이다(한현숙, 1997 : 4).

또한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조선족들의 생활

양식은 한민족적인 것으로 범주화되고 있으나 교류가 단절된 기간 동안에 겪은 서로 다른 사회 체제에서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 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한현숙, 1997).

지금까지 재한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사회학(황승연, 1994; 한현숙, 1997), 교육학(국성하, 1996), 행정학(김창석, 2000), 지리학(정수열, 1996), 간호학(김소정, 1997), 의학(허준영, 1998) 등 각 개별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한 중국 조선족들의 생활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적 측면에서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행태 및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동포인 중국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인이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갈등 해결과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 II. 이론적 고찰

### 1. 중국 조선족

중국 동포인 조선족은 '조상은 조선이면서 국적상 중국공민인 사람'을 말한다. 즉 조국은 중국이며 한국은 고국이다. 중국 정부는 선조들이 동북지구에서 피땀으로 일군 농토와 항일투쟁의 공을 높이 사 이 민역사가 짧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에게 1952년 자치권을 부여해 문화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인원수에서 2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지리적으로 고국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남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북조선과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과 많이 거래하고 있다(한겨레 2001.01.01).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방문은 80년대 초반 중국의 개방화정책을 표방한 후 적은 규모로 시작되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이 일확천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90년대 들어와 중국의 개혁개방이 확대되고 한국과 수교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돈을 벌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수, 친척방문, 관광, 위장결혼, 밀입국의 방법을 통하여 입국한다. 대부분 중국 조선족들은 브로커를 통하여 수속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문화춘, 1997 : 195-196; 황승연, 1994 : 184, 문화일보, 2000.12.05).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2000년 3월 말 현재 72,426명으로서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411,589명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법체류자는 26,848명(37.1%)이고, 불법체류자는 45,578(62.9%)이다. 이들을 각각 전체 체류외국인에 대한 구성비로 살펴보면 합법체류자 비율은 9.8%인 반면에, 불법체류자 비율은 30.7%로서 전체 불법체류 중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친척방문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25,169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체류목적으로 입국한 자들로서 이중 불법체류자가 16,358명(65%)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20,690명이며 그 다음이 결혼 동거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6,394명으로서 이중 불법체류자는 2,079명이 된다(김창석, 2000 : 35-39).

## 2. 제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형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제한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입국초기의 언어문제에서 인간 관계 문제·그 외에 음식·시간개념 등의 생활습관의 문제, 차별대우·임금체불·사기·사고·경제적인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적인 문제 등이다(황승연, 1994; 국성하, 1996; 정

동욱, 1997; 조용관, 2000).

제한 중국 조선족들의 식생활 실태를 보면, 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평생을 중국에서 보냈다. 따라서 민족 고유의 생활을 영위해 왔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생활에 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식단을 보면, 한국 음식과는 달리 고기를 이용한 음식과 기름에 볶는 음식이 많다. 중국 조선족 거주지가 대부분 추운 곳이므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 조선족의 식습관과 고기를 주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식습관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한현숙, 1997 : 46).

제한 중국 조선족들의 주생활의 실태를 보면, 중국 조선족들은 대부분 남자는 건설현장, 여자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들은 주로 근무지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도시 주변의 임대료가 싼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정동욱, 1997; 15), 거주하고 있는 방들의 규모도 크지 않아 많은 세간을 유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한현숙, 1997).

제한 중국 조선족들의 경제생활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이 받는 임금은 중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지만, 한국 입국 때 진 빚을 갚아야 하고, 한국의 비싼 물가에 따른 생활비를 지출하다보면 중국에서 생각하고 온 것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없으며(한현숙, 1997 : 49), 특히 불법체류 중국 조선족들은 자기가 번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조용관, 2000 : 99). 한편 황승연(1994 : 195)에 연구에 의하면 한국생활에서 한달 생활비 지출은 20만원 미만인 55.2%로 가장 많았고, 모은 돈에 대한 관리는 은행에 저축(58.2%), 현금으로 보관(17.9%), 아는 사람에게 맡김(16.4%), 고용주에게 맡김(7.5%)으로 나타났으며, 한현숙(1997 : 49)의 연구에서도 임금의 절반정도를 송금하거나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 중국 조선족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의 한국 생활은 일과 휴식의 반복이다. 근무시간과 근무의 시간에 행하는 잔업과 특근으로 일터와 숙소(기숙사)를 맴도는 생활이 되기 쉽다(한현숙, 1997; 58-59).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상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섭취하고 있는 주식 및 부식 등을 통한 식생활, 한달 평균 의복 구입비와 1년 동안 구매하는 옷의 수 등을 통한 의생활, 현재 살고 있는 곳 및 방1개당 거주 인원 등의 주생활, 월평균 생활비 및 월평균 저축액 등의 경제생활, 하루 여유시간 및 여가 행태 등의 여가생활을 통해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

삶의 질을 개념화하는 지표는 보통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이다. 객관적 측면의 지표는 관찰 대상자의 내부적 상태에 관계없이 외부 관찰자에 의해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의미하며, 주관적 차원의 지표들은 몇몇 삶의 영역에 대한 개인적 만족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같은 지표들이다. 근래에 이르러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연구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의 설명력이 더 높음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만족감의 측면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Andrews & Witty, 1976 ; Campbell et al., 1976 박미석, 1996 : 35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은 복지감(방금녀, 1995), 생활만족도(김소정, 1997), 정신건강(허춘영, 1998), 국내 체류 중국 조선족의 문제점(황승연, 1994; 조용관, 2000) 등의 선행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조선족은 불법체류의 경우 신변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많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중국 조선족의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하는 것과 산업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냉대는 한국 생활에서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한국사회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방금녀, 1995).

재한 중국 조선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소정

(1997 : 72)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는 입국 전 1-2년에 비하여 입국 후 1-2년에서 유의한 차이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허춘영(1998. : 5-29)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 유학생은 한민족 문화와 중국문화 사이에서 이중 적응을 해온 사람들로 고국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클 때, 고국의 문화와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때, 고국에 와서 변화된 문화와 환경을 지각했을 때 문화 재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한 중국 조선족 유학생의 경우 체류기간이 길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은 증가한다고 말하며, 체류기간에 따른 만족도나 생활만족도는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황승연(1994 : 19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귀국 조선족들은 북한인에 대하여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자보다 남자가 한국사람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고, 특히 26세부터 45세 청·장년층에게서 반감이 두드러졌다. 이는 취업 중에 겪은 그들의 수모, 인격적 모욕, 차별 대우 등에 대한 감정이 고국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법무부 보호시설의 낙후로 인해 보호시설에 수용된 조선족들이 한 겨울에도 홑겹 죄수복을 걸치고, 운동은 커녕 신문도 보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을 볼 때(조용관, 2000 : 99), 재한 중국 조선족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조선족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재한 중국 조선족들의 배경변인(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건강상태, 소득적정감, 자아존중감, 입국방법, 입국동기)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와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인과 그들의 설명력을 밝혀내어 재한 중국 조선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행태(의생활·식생활·주생활·경제생활·여가생활)는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배경변인(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건강상태, 소독적정감, 자아존중감, 입국방법, 입국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인은 무엇이며,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재한 중국 조선족의 한국생활적응시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2. 용어의 정의

1) 중국 조선족 :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 받은 사람들을 말하며, 현재 조선족을 부르는 명칭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선족', '중국 조선족', '중국교포', '재중한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재한 중국 조선족 : 재한 중국 조선족이란 2000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을 의미한다.

## 3.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행태 및 삶의 질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2000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20일 - 7월 5일 사이에 '동포의 집'에 관계하는 재한 중국 조선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중국전문학자 및 목사님, 중국 조선족 2명에게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질문의 용어, 배열 등에 관한 일체의 자문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본 조사는 재한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내용 및 용어에 대한 2차 수정 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시행하였는

데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목사님의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3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225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삶의 질은 박미석(1996)이 Campbell과 그의 동료(1976)들이 만든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인 KQOL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본 연구에 사용한 삶의 질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9$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alpha = .68$ ), 운명통제성향( $\alpha = .60$ ), 성역할 태도( $\alpha = .72$ )는 모두 5점 Likert척도로서 각각 6문항, 3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운명통제성향이 높고,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 태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Rowland 등(1985)의 연구를, 운명통제성향은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의 연구를, 성역할태도는 김양희(1997)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정생활영역별(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행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1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중국 조선족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과 현재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교육, 한국정부나 한국사람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PC+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F-test 검증, Regression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50대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6%), 20대(21.3%), 30대(1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범주형변수)

(n=225)

관련변인	집 단	빈도(%)	관련변인	집 단	빈도(%)
연령	20대	46(21.3)	학력	소학교졸	15(8.6)
	30대	40(18.5)		중중퇴 및 중졸	52(29.9)
	40대	51(23.6)		고중퇴 및 고졸	74(42.5)
	50대	79(36.6)		대중퇴 및 대졸이상	31(17.8)
월평균 소득	60만원미만	70(32.4)	입국 동기	돈을 벌기위해	122(71.4)
	60~80만원미만	31(14.1)		친척방문	28(16.4)
	80~100만원미만	53(24.5)		결혼하기	3(1.8)
	100~120만원미만	37(17.1)		기타	18(10.5)
	120~150만원미만	14(6.5)			
	150만원 이상	11(5.1)			
소득 적정감	매우 부족	33(19.0)	입국 방법	위장결혼	5(3.0)
	약간 부족	30(17.2)		친척초청	80(47.3)
	보통	79(45.4)		밀입국	7(4.1)
	약간 여유	27(15.5)		회사연수	41(24.3)
	매우 여유	5(2.9)		기타	36(21.3)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18(9.6)	현재 직업	단순노동자	27(17.6)
	대체로 좋지 못함	33(17.6)		공장기술자	62(40.5)
	보통	77(41.0)		단순서비스업	37(24.2)
	대체로 건강	41(21.8)		파출부	20(13.1)
	매우 건강	19(10.1)		자영업	2(1.3)
			무직	5(3.3)	

학력은 소학교졸이 8.6%, 중졸이 29.9%, 고졸이 42.5%, 대졸이상인 17.8%였다. 월평균 소득은 60만원이하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적정감은 부족이 36.2%, 보통이 45.4%로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함이 9.6%, 건강하지 못함이 17.6%, 보통이 41.0%, 대체로 건강이 21.8%, 매우 건강이 10.1%로 나타나 대체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

한국에 온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가 71.4%로 나타나 대부분 중국 조선족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옴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을 보면 친척초청이 47.3%, 회사연수가 24.3%, 기타가 21.3%의 순이었다. 이들의 현재 직업은 공장기술공이 40.5%, 단순서비스직 24.2%, 단순노동자 17.6%, 파출부 13.1%, 무직 3.3%, 자영업 1.3%

이었으며, 대체로 임금이 낮은 단순노동자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평균 3.93점(5점 만점)으로 중간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운명통제성향은 평균 3.17점(5점 만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표 2〉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연속변수)

관련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자아존중감	3.93	.06	1점 - 5점
운명통제성향	3.17	.70	1점 - 5점
성역할태도	2.62	.69	1점 - 5점

\* 자아존중감과 운명통제성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운명통제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성역할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를 의미한다.

\*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여 빈도수의 차이가 남.

통제하려는 성향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성역할태도는 2.67점(5점 만점)으로 다소 근대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행태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의생활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68.2%)이 1년에 옷을 1벌-3벌 정도 구입하였으며, 구입하지 않거나 얻어 입는 경우도 23.2%나 되었다. 이는 재한 중국 조선족인 조선족은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중고제품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한현숙(1997; 5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월평균 의복구입비는 1-2만원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3-4만원이 21.6%, 전혀 없다가 13.5%, 5-6만원이 11.1%, 9만원 이상이 8.2%로 나타났다.

<표 3> 재한 중국 조선족 성인 남녀의 생활행태

(n=225)

생활영역			생활영역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의 생 활	1년 동안 구매하는 옷의 수	4벌 이상	18(8.6)	현재 살고 있는 곳	독립(독채)	9(4.4)
		2~3벌	74(35.2)		월세	144(70.6)
1벌		69(32.9)	단칸방		12(5.9)	
없음		20(9.5)	여관,여인숙		4(2.0)	
얻어입음		29(13.8)	기타		35(17.2)	
월 평 균 의 복 구 입 비	없다	28(13.5)	방 1개당 거주 인원	1명	57(27.8)	
	1~2만원	86(41.3)		2명	98(47.8)	
	3~4만원	45(21.6)		3명	31(15.1)	
	5~6만원	23(11.1)		4명	9(4.4)	
	7~8만원	9(4.3)		5명	3(1.5)	
	9~10만원	13(6.3)		6명이상	7(3.4)	
	11만원이상	4(1.9)				
주 생 활	주식	쌀밥	171(81.4)	전화, 수도, 전기 등의 월 평균 사용비용	1~5만원	27(14.2)
		잡곡밥	20(9.5)		6~10만원	31(16.3)
		라면	10(4.8)		11~15만원	36(18.9)
		기타	9(4.3)		16~20만원	43(22.6)
하루 식사 횟수	3회	139(66.5)	21~25만원	13(6.8)		
	1~2회	63(30.1)	26~30만원	19(10.0)		
	기타	7(3.4)	31만원이상	21(11.1)		
생 활	일회 식사시 반찬수	1가지	22(10.5)	소유가정기기 (복수응답)	텔레비전	172(76.4)
		2가지	86(41.0)		전화	126(56.0)
		3가지	71(33.8)		다리미	96(42.7)
		4가지	23(11.0)		라디오	61(27.1)
		5가지이상	8(3.8)		전자레인지	27(12.0)
주로 먹는 반찬	나물류	51(27.6)	가스레인지		131(58.2)	
	생선류	4(2.2)	사진기		45(20.0)	
	김치	110(59.5)	컴퓨터		14(6.2)	
	고기류	20(10.8)	전기장판		74(32.9)	
			세탁기		83(36.9)	
			냉장고	165(73.3)		

〈표 3〉 재한 중국 조선족 성인 남녀의 생활행태(계속)

(n=225)

생활영역		구분	빈도(%)	생활영역		구분	빈도(%)
경제생활	월평균생활비	20만원미만	80(37.0)	여가생활	월소득 사용처	집(연변)에 보낸다	84(52.8)
		20~30만원미만	30(13.9)			한국의 생활비	39(24.8)
		30~40만원미만	39(18.1)			저축	36(22.6)
		40~50만원미만	47(21.8)		1일 평균 여유 시간	1시간	27(16.5)
		50만원이상	22(9.2)			3시간	64(39.0)
	월평균저축액	15만원미만	99(45.8)	5시간		1(0.6)	
		15~30만원미만	59(2.3)	6시간		38(23.2)	
		30~50만원미만	10(4.6)	8시간이상	34(20.7)		
		50~60만원미만	59(27.3)	여가 행태	휴식·수면	33(31.4)	
		60~70만원미만	28(13.0)		TV·신문·음악	13(12.4)	
	70만원이상	15(6.9)	독서·공부		24(22.9)		
	월평균소득	60만원미만	70(32.4)		PC방·오락실	2(1.9)	
60~80만원미만		31(14.1)	교회		24(22.9)		
80~100만원미만		53(24.5)	관광·친구만남	4(3.8)			
100~120만원미만		37(17.1)	운동·산책·등산	3(2.9)			
120~150만원미만		14(6.5)					
150만원이상	11(5.1)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여, 빈도수의 차이가 남.

식생활의 경우에, 주식은 조사대상자 대다수(81.4%)가 쌀밥을 먹고있으며, 하루에 3회 즉 아침,점심,저녁 세끼를 모두 먹는 경우는 66.5%, 한끼 혹은 두끼를 먹는 경우도 30.1%로 나타나, 재한 중국 조선족의 30%정도가 기본적인 세끼 식사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회 식사시 반찬수는 2가지(41.0%), 3가지 이상(33.8%), 4가지(11.0%), 1가지(10.5%), 5가지 이상(3.8%)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주로 먹는 반찬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59.5%가 김치를 먹고 있으며, 고기는 10.8%. 생선류는 2.2%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들의 전통적인 식사풍습을 보면 평소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과 김치, 그리고 각종 나물을 부식하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였다(강순화, 1993 : 176). 그러나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에서의 거주지가 대부분 추운 곳이므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지니고 있어 (한현숙, 1997 : 46), 재한 중국 조선족의 경우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생활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주거형태는 월세가

70.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수열(1996 : 53)의 연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방 1개당 거주하는 인원은 2명(47.8%), 1명(27.8%), 3명(15.1%), 4명 이상(8.3%)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화, 수도, 전기 등의 월평균 사용비용은 16-20만원(22.6%), 11-15만원(18.9%), 6-10만원(16.3%), 1-5만원(1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기기는 TV(76.4%)였으며, 그 다음이 냉장고(73.3%), 가스레인지(58.2%), 전화(56.0%)순으로 나타났고, 세탁기 36.9%, 전자레인지 12.0%, 컴퓨터 6.2%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기기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생활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생활비는 20만원 미만이 37%, 20-30만원이 13%, 30-40만원이 18.1%, 40-50만원이 21.8%, 70만원 이상이 9.2%였다. 이들의 매달 저축액은 15만원 이하가 45.8%로 가장 많았고 50-60만원이 27.3%로 다음의 순으로 나타나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소득 사용처를 보면 1순위가 '집(중국)에 보낸다', 2순위는 '한국에서의 생활비(24.8%)', 3순위는 '저축(22.6%)'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여유시간은 3시간(39%), 6시간(23.2%), 8시간 이상(23.2%), 1시간(16.5%)의 순으로 나타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대체로 여유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여가행태를 보면, '휴식, 잠자기, 아무일 안한다'가 31.4%, '독서, 공부, 학습'이 22.9%, '교회(성경공부, 자원봉사)'가 22.9%, 'TV시청, 신문보기, 음악듣기'는 12.4%로 나타났다.

3. 재한 중국 조선족의 배경변인에 따른 삶의 질

조사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 3.35점(7점 만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4).

〈표 4〉 재한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

	평균	표준편차	범위
삶의 질	3.35	.80	1점 - 7점

\* 삶의 질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은 〈표 5〉과 같다.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p<.05), 소득적정감(p<.001), 자아존중감(p<.05), 건강상태(p<.001), 학력(p<.005), 한국에 온 입국동기(p<.05)로 나

〈표 5〉 재한 중국 조선족의 배경변인에 따른 삶의 질

배경변인		삶의 질		배경변인		삶의 질	
		M(Duncan's)	F-test			M(Duncan's)	F-test
연령	20대	3.39 A	2.52*	입국 동기	돈을 벌기위해서 친척 방문 결혼및 기타	3.40 A	3.13*
	30대	2.99 B				3.17 B	
	40대	3.47 A				3.08 B	
	50대	3.39 A					
월평균 소득	60만원미만	3.07	2.35	입국 방법	친척초청 회사연수 기타	3.49	3.14
	60~80만원미만	3.27				3.25	
	80~100만원미만	3.33				3.16	
	100~120만원미만	3.67					
	120~150만원미만	3.07					
150만원이상	3.64						
학력	소학교졸	3.75 A	3.70*	소득 적정감	매우 부족 약간 부족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2.82 A	9.62***
	중중퇴 및 중졸	3.60 A				3.29 A	
	고중퇴 및 고졸	3.10 B				3.34 A	
	대중퇴 및 대졸이상	3.26 B				3.99 B	
건강 상태	매우 건강	3.75 A	7.99**	자아 존중감	상 중 하	3.98 A	3.53*
	대체로 건강	3.50 B				3.90 A	
	보통	3.39 C				3.72 B	
	대체로 좋지 못함	3.38 C					
	매우 좋지 않음	2.57 D					

\*p<.05 \*\*p<.01 \*\*\*p<.001

우에, 주식은 조사대상자 대다수(81.4%)가 쌀밥을 먹고있으며, 주로 먹는 반찬은 김치(59.5%)였다. 주생활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주거형태는 월세가 70.6%로 가장 많았으며, 방 1개당 거주하는 인원은 2명(47.8%)이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생활비는 20만원 미만이 37%였고, 이들의 매달 저축액은 15만원 이하가 45.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월소득의 사용처를 보면 제일 먼저 집(중국)에 보낸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을 보면, 하루 여유시간은 39.0%가 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행태를 보면, '휴식, 잠자기, 아무일 안한다'가 31.4%, '독서, 공부, 학습'이 22.9%, '교회(성경공부, 자원봉사)'가 22.9%, 'TV시청, 신문보기, 음악듣기'는 12.4%로 나타났다.

2.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 3.35 점(7점 만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 $p < .05$ ), 소득적정감( $p < .001$ ), 건강상태( $p < .001$ ), 학력( $p < .005$ ), 자아존중감( $p < .05$ ), 한국에 온 입국동기( $p < .05$ )로 나타났다.

3.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소득적정감( $\beta = .334$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수준( $\beta = -.190$ ), 월평균소득( $\beta = .170$ ), 건강상태( $\beta = .151$ ), 자아존중감( $\beta = .133$ )이었다.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35%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재한 중국 조선족의 생활 행태를 보면, 오직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입국하여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물리적인 시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바라는 점도 한민족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재외국민 등을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한 중국 조선족의 삶의 질 수준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소득적정감이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한 중국 조선족이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소득수준이 현재의 삶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재한 중국 조선족에 대하여 미시적 차원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다수의 재한 중국 조선족이 '인간적 대우'에 대한 요구가 1순위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들에 대한 개인·사회·국가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표집 수가 제한적이었고, 선행연구의 미비로 인해 연구결과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비교하는데 미흡함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재한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며, 앞으로 가정확자로서 우리 동포인 중국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순화(1993). 연변조선족의 생활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 정신문화연구 51, 158-182.
- 2) 국성하(1996). 중국 조선족의 한국문화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소정(1997). 재한 조선족 근로자들의 생활만족도와 신체증후군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양희(1997). 여성의 직업의식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 5) 김창석(2000). 재중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문화춘(1997). 中國同胞 入國 및 滯留實態와 課題. 법조 492, 193-212.
- 7)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8) 방금녀(1995). 재한중국동포(조선족)의 사회적문제와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 9) 이광규(1994). 재중한인-인류학적 접근-서울 : 일조각.
- 10) 이정우·이정숙·박미금(1998). 한국 도시인의

- 가치지향성 및 생활관리 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19.
- 11) 정동욱(1997). 중국동포의 출입국 실태와 문제점. 경영법무 45, 12-17.
- 12) 정수열(1996).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행태. 서울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3) 조용관(2000).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 북한 342, 94-103.
- 14) 한현숙(1997).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5) 허춘영(1999).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황승연(1994).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조사연구. 경희대 아태연구 1,1,183-208.
- 17) 문화일보. 2000.12.05.
- 18) 중앙일보. 2001.02.12
- 19) 한겨레신문. 2001.01.01.